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활력소 역할

낮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세계 수준으로

이국노 /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회장

“저리” 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을 위해 그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 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재활용공제조합을 설립, 그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활용공제조합을 선택, 회원으로서의 재활용분담금을 내거나 자체적으로 특정 재활용 사업자와 계약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6월 21일에 환경 관련 인사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플라스틱공제조합인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창립 총회가 개최됐



으며 이국노 전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이사장이 회장으로 추대됐다.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에서 1백2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창립됐다.

이 회장은 “협회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시행에 따른 플라스틱 재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조사와 시범 재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할 계획이며, 생산자·사용자·재활용 업체 등 각 분야별 조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 회장은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재활용 목표량이 기술과 경제적으로 이행 가능토록 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협조와 지자체의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 인력과 기초적 선별장치 회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아닌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길”

복은 물론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시설 능력을 단기간에 증설, 보강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활용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적정의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플라스틱의 유용성, 경제성, 환경성, 재활용성 등에 대한 언론기관과 환경단체, 학교 등 플라스틱 이미지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간 플라스틱을 생산 판매만 위주로 해 왔기에 쓰레기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협회는 공장을 세워 유치원을 비롯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교육자료를 책과 CD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플라스틱이 공해가 아닌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자 할 것”이라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협회는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을 충원한 후 단기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런 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면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를 흡수합병하고 협회 산하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장폐기물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중 많은 국가들에서 높은 관심의

대상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 회장은 “현재 플라스틱 중에서도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에 따른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며 “라면 및 과자 포장, 세제공장, 화장품 공장(케이스), 식·음료병(우유 및 용기)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를 나눠 2003년에는 재활용 의무를 규정, 사업장을 중점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장점을 살려 사용이 꼭 필요할 시에는 이를 사용토록 장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회가 산업자원부 산하가 아닌 환경 규제를 가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단체인 것도 이러한 점을 직접 맞부딪쳐 해결코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상 “정도”를 지키며 플라스틱 업계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이 회장의 앞으로의 활약을 통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활기를 찾길 기대해본다. [K]

권해진 기자